

2018년 상반기 (주)서울프린스호텔 협력, 문학창작집필실(소설가의 방) 사업 입주작가 선정심사 총평

○ 심사위원 : 김도연, 해이수, 윤고은

명동 한복판 어느 호텔에 ‘소설가의 방’ 문패를 단 방이 있다는 것, 그것이 4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018년 상반기 호텔프린스 ‘소설가의 방’에 입주를 신청한 작가는 모두 21명이었고, 새로운 시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꼼꼼히 적어 제출했다. 지원신청서를 읽는 동안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활력을 느낄 수 있었고, 그중에 몇 명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심사위원마다 6명씩 작가를 추천한 후 그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활동 이력과 작품집 발간 계획을 바탕으로 최대한 호텔프린스라는 시공간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출판사와의 계약 등으로 단행본 발간이 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작품 발표 이력 등을 고려해 부지런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안배했다. 또한 타 집필공간에서 이미 입주 경험을 갖고 있는 작가들보다는 최대한 입주 경험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 작가에게 먼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고려했다. 그 결과 이동욱, 기준영, 김갑용, 한운섭, 하명희, 나푸름 작가가 2018년 상반기 입주작가로 선정되었다. 모두 개성과 뚝심으로 걸어가는 작가들이다. 이들이 낯선 방에서 그리게 될 행보를 응원한다. 계획한 바는 물론이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놀라운 자극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소설가 김도연 해이수 윤고은